

소돔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었다. 롯에게는 자신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 롯의 말을 들으면, 롯의 말을 믿으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이 순간만큼은 롯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자녀는 물론이고 결혼할 사위들과 소돔 성 안에서 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 창세기 19:12**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듣고, 믿고, 도망쳐야 살 수 있다고 전해야 했다. 시간이 없다. 그러나 이미 영적, 도덕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롯의 말을 사위들조차 귀담아 듣지 않았다. 삶이 뒷받침 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 이 밤중에 무슨... 농담도 잘하시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 창세기 19:14**

입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도 제 발도 떨어지지 않는 롯이었다. 오죽 지체했으면 천사들이 독축을 하다 못해 성 밖에 두어버렸다. 롯은 미련이 남았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돌이로, 유목민으로 살던 그가 정착생활을 했다. 소돔 왕의 백성과 재산을 되찾아준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유리한 조건도 있었다. 롯은 벌써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딸들은 결혼 상대를 정했으며 성문 앞에 앉아 큰소리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 두고 가기에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 창세기 19:16**

천사들은 급히 산으로 도망하라 권면했다. 그러나 지금 롯은 산 까지 올라갈 수 없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집안 사람들이 맨 몸으로 나왔을리가 없다. 괜히 시간이 오래 걸린게 아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 창세기 19:20**

‘이는 작은(소알) 성읍이 아니니이까’. 소돔처럼 큰 도시도 아니고, 그냥 두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롯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심판을 유예했다. 가족 모두가 소알로 들어갈 때 심판이 시작됐다. 롯의 아내는 한번이라도 더 소돔을 보려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려 간청하던 그 자리에서 치솟아 오르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라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 창세기 19:29**

심판은 끝났지만 롯의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소돔 문턱에 있던 소알에서 사는 것이 롯에게 편안할리가 없다. 결국 도시를 떠나 산 속 동굴에서 두 딸과 살게 된다. 그곳에서 딸들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각각 아들을 낳는다. 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다.